

문화산책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2025년 8월 30일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1999년 제주에서 발행하는 ‘다충’이 제안해 결의한 것으로, 기존 한국문학의 중앙집권적인 문학사회의 행태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각 지역을 연고로 하는 우수문예지들이 ‘지역이 중앙이다’라는 모토를 걸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어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군부 세력에 의해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대를 거처온 여파를 겪고 있었던 탓에 문단 또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전국 계간문예지 편집자들’은 문학이 제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나라 문학이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정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지역 문학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노출시키고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다부진 결의가 그 바탕이었다.

제2회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대회는 중앙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블랙홀 같은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침체된 지방문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해마다 회원사가 돌아가며 자신의 연고 지역에서 지역문학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묘안을 짜내며 다양한 담론을 펼

쳐왔다.

광주를 연고로 발행하고 있는 ‘시와사람’은 창간 30년 차로 강경호를 중심으로 고재중, 광재구, 신덕룡, 허형만, 이은봉, 김선태, 이지엽 등의 편집위원이 함께해 광주를 지역문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보자는 꿈을 가지고 시작해, 정상급의 훌륭한 문예지로 성장했다.

그간 문학은 으레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대부분의 문예지와 문학단체, 작가들 또한 서울이라는 ‘중앙’에 포진해 활동하면서 지방 문학을 서울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체제로 문단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지역 작가들은 발표의 지면에서 소외되기 일췌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 구조 속에서도 지역에 새로운 문예지들이 발행되면서부터 발표의 장이 확장됐다.

오히려 지역 문예지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중앙문예지들보다 참신한 기획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시와사람’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관한 담론은 한국 생태문학을 이끌었고, 문학과 미술의 융복합에 관련된 미술과 문학의 만남인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담론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문예지로 정평이 났다.

더불어 광주만중항쟁을 투영한 새로운 작품 발굴, 잊혔거나 잃어버린 광주·전남의 문학사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와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광주문예재단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으니, 참으로 자존심이 상해 있다. 그러나 ‘시와사람’의 진

정성을 이해하게 되면 시와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에 대해 인정할 것이라고 본다.

외지에서 ‘광주’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시와사람’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광주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예지임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올해 8월 30일 시와사람이 주관해 개최되는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대회’에는 전국 거점도시의 우수한 문예지들의 발행인·편집자·시인들 150여 명이 광주를 찾는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지역문학의 제1인자인 경남대학교 박태일 명예교수의 ‘전남·광주의 잊혀진 시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들의 문학적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광주문학관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클러스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박 교수는 벌써 몇 년째 ‘시와사람’에 전남·광주의 근현대사에 활동했다가 사라진 문학인들의 삶과 문학을 복원해 왔다.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예지 편집자들이 모여 한국지역문학의 제문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고 의견을 개진해 우리 지역문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그리고 난타, 시 낭송, 공연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간의 소통과 유대를 돈독히 하게 된다.

‘시와사람’은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대회를 4번째 실시하고 있는데, 시와사람과 출신 시인들인 ‘시와사람사회’가 함께 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의 문학적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운영되고 있으며, 북극경 갤러리, 북구평생학습관 자미갤러리, 풍물갤러리, 금봉미술관, 북구문화센터 오픈갤러리 등 북구 관내 주요 전시공간 대부분이 전문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예관장’과 같은 형태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전시기획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긍정적 사례가 있다.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북광주세무서(서장 노현탁)는 신청사 준공과 함께 1층 공간을 ‘갤러리&409’로 조성했다. 이 공간에는 오차동에서 활동 중인 ‘해바라기 작가’ 박유자 화가가 명예관장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다소 협소한 공간임에도 공공청사에 갤러리를 조성하고, 예술인을 주도로 참여시킨 이번 사례는 김재균 전 의원은 북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공공시설의 문화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장을, 주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이러한 시도는 북구 문화정책이 지향해온 방향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박 명예관장이 이끄는 ‘갤러리&409’가 지역 예술인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주민과 예술이 만나는 일상 속 문화장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예술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이 실험이 지역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 김재균을 기억하며

기고

설정환

시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시인이자 화가였던 김재균 전 국회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만 10년이 됐다.

필자는 그의 국회의원 재임 시절 비서, 비서관,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으며, 그와의 깊은 인연은 필자가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문화북구’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문화에 술인들과 스스럼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치인이자 진정한 문화인이었다.

그는 2001년, 35년간 써온 시를 모아 첫 시집 『달빛 아래 찢레꽃』을 펴냈다. 당시 시에 대해 아무런 안목도 없던 필자에게 정성스럽게 출력한 시 몇 편을 건네며 “한 번 읽어 봐 주게” 하던 2007년 겨울의 첫 만남이 지금도 생생하다. 답답한 미소와 함께 시를 내밀던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무엇보다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정확히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는 병실로 나를 불렀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문 오시는 분들께 시집 한 권씩 선물하고 싶네”라며 유언 같은 부탁을 전했다.

이미 두 번째 시집 ‘장수풍뎡이를 만나다’를 낸 그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집 ‘무등을 그리며’의 완고를 내게 맡겼다. 그 유고 시집은 불과 일주일 만에 편집과 인쇄를 마쳐, 문상객들의 손에 그의 마지막 인사로 전해졌다. 필

자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방식의 이별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로 삶을 정리했고, 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삶 전체로 보여주었다.

김재균 전 의원은 문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북구청장 재임 시절 선명한 족적을 남겼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이듬해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 정책을 제도적으로 선도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문화정책의 정수는 2000년 9월 개관한 ‘일곡도서관’에 담겨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건립된 광주 최초의 생활권 공공도서관이자, 미술작품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를 함께 구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서관을 곁에서 5~10분 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슬세권’(슬리퍼 신고 생활 가능한 생활권)의 개념을 이미 실현한 선구적 사례였다. 그러나 개관 25주년을 맞은 현재, 일곡도서관은 여러 차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의 위상을 점차 잃고 있다.

특히 일곡갤러리는 북구 공립도서관 6곳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운영은 대부분 사서들이 병행해 왔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일곡갤러리 전시를 외면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삼각동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도 마찬가지다. 2007년 개관 이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

2018년 침수 직후 104억원을 들여 백운광장 하수암거 정비사업(522m)을 시작했다.

당시 도시철도2호선 건설 공론화 논란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김병내 남구청장은 재단관리기금 40억원 요청, 행정절차 병행, 실시설계 조기 마무리, 양방향 시공 등을 건의해 2020년 준공되도록 공헌했다.

수년간 이어진 노력은 결과로 입증됐다. 지난 17일 백운광장 일대에 시간당 92㎜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지만,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침수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침수 깊이나 범위 등이 줄었다는 점은 주지할 대목이다.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극한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남구의 적극적인 조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

OPINION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사설

광주시 2028 전국체전 유치 성공하길

광주시가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유치에 나선다고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열린 ‘광주 체육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약속한 것이다.

유치에 성공하면 2007년 제88회 대회 개최 이후 21년만이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체육회·장애인체육회·광주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체전은 정부가 운영비 40억~60억원, 시설비 최대 200억원 등을 정책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체전 개최 예정 도시인 제주(2026년), 경기(2027년), 충남(2029년) 등과 함께 국비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 체육인들은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경험을 토대로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광주시체육회도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한다. 먼저 2028년 대회 유치 시 다음 해인 2029년 소년체전, 2030년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올해 부산 체전이 1100여억원, 내년 제주대회가 1300여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655억원이 소요되는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8만4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일반 관람객 등 총 유입 인원은 최대 15만명이며, 추진되는 직접 경제효과 1111억원, 생산유발효과 2172억원, 취업 유발효과 2614명 등 만만치 않은 경제 파급효과도 들었다.

광주시체육회는 9월 26일까지 대회 운영계획을 담은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대회 개최지는 11월 중 현장실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된다고 한다.

광주에서 21년만에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금호타이어 ‘정상화로드맵’ 충실히 이행

지난 5월 17일 화재로 가동이 멈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연내 재가동된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한 것이다. 화재 발생 두 달 여 만이다.

노사는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구성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이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 설비를 보완해 올해 안에 하루 6000본 생산 수준으로 가동기로 했다.

이는 광주공장이 화재 전 생산량이 하루 평균 3만2000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8.75%에 불과하지만 광주 1공장 조기 가동으로 어느 정도 고용 불안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설비를 중심으로 일부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반제품 및 고무 자재는 곡성공장과 외부에서 공급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노사가 신속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합평 신공장은 2단계로 나뉘어 건설하기로 했다.

1단계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연 530만본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해 이듬해 1월부터 본격 가동기로 한 것이다.

이후 기존 부지 매각 시 광주 1공장도 합평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평공장과 관련, 사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정령공정 우선 신속 후 단계적 공장 이전 추진 입장을 보였고 노조는 단계적 이전이 아닌 전체 공장의 신속 이전을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도 공장 이전 및 재건 과정에서 현재 전 직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 가동 인력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합평 신공장 역시 광주 근무 인력의 전환 배치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 불안에 떠는 노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평 신공장 이전 전까지 생길 수 있는 공급망 공백을 다소 막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사의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구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